

15대 국회에 농민 대변자가 많이 선출 되기를...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춘분이 지나면 자연은 새로운 역동적인 삶을 출발하게 된다.

예로부터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동지나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은 새로운 의미를 가져왔다.

4월 11일이면 앞으로 4년간 입법부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이미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국회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결정으로 인정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국정감사권 등 누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축산업계는 수입개방을 1년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10년래 숙원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일과 원료사료의 관세 영세율 적용과 앞으로 업계 스스로 양돈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자조금제도의 확립 등 15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농민을 위해 농민(농축산업)을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15대 국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업과 국민의 먹거리 문제, 환경보전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번 15대 국회에 출마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농촌지역에서도 농촌을 대변할 후보가 없어 농민의 입장에서 짜증이 나올만한 곳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천은 각 정당에서 하지만 짜증이 나는 것은 농민이다.

요즈음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지방도시에까지 교통체증이 심하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 새치기를 하는 암체족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한다. 잘못된 새치기 한 사람에게 있는데 짜증나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킨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일본은 돼지고기 수입에 있어 기준 가격을 정하고 차액은 관세로 흡수하기 때문에 환율이나 덤핑제품에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어 양돈농가는 가격안정이라는 보호를 받게 된다.

우리도 차액관세 문제는 오래 전부터 업계에서 주장하여 왔지만 국내에서 시행도 해보지 못하였고, UR협상에서 쌀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축산물은 가장 불리하게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잘못된 협상대표에게 있지만 짜증나고 피해를

이번 15대국회에서
 농민을 위해 농민(농축산업)을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업과 국민의 먹거리 문제,
 환경보전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양축농가들은
 이번 15대 총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는 것은 양축농가가 된다.

양축농가들이 이번 15대 총선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으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과 운영을 하지 않으면 개방화 시대에 점점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을 기해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각 정당 대표나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정치권에서 농민들을 보는 시각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하였는데 양축농가들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UR협상 이후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면서 신토불이나 식량안보 등의 구호가 퇴색되어 가고 일반 국민들도 과거 전폭적인 농민, 농업, 농촌문제에 대한 지원에서 비판적 지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비자 단체의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요구 등 수입 축산물과 국내 축산물을 같은 위치에서 다루는 수준으로 급격히 소비자 시각이 바뀌기 때문이다.

생산자 단체들이 소비자 교육을 꾸준히 계속하고 농민, 농업, 농촌문제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15대 국회에 많이 선출되어 농민들의 요구사

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농민들이 집회나 가두행진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많은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너무 빨리 상황이 변화하고 국민 의식 구조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다.

개같이 벌여 정승같이 쓰자는 교육이 있는 한 과학적이고 양심적인 축산이 정착되기 어렵고 쇠뿔도 단 김에 빼자는 성급함으로는 조잡하고 잘못하면 뿔 빼려다 소가 죽을 수도 있다.

GNP 만불시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으면 개방에 대비할 수 없다.

최근 소의 기종저, 광견병, 닭의 가금인플루엔자, 돼지 콜레라, TGE 등 각종 질병의 만연과 육성전기 사료를 출하까지 끝내는 방법 등이 모두 개같이 벌고 쇠뿔도 단 김에 빼려는 생각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5대 총선을 계기로 우리도 합리적이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정석에 입각한 업계발전 방법을 추진해 가야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당노병을 고쳐야지 갈증난다고 물만 마셔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는 없다.